『다문화와 평화』 제14집 3호
DOI http://dx.doi.org/10.22446/mnpisk.2020.14.3.008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독일통일 연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태훈*·김영순†
인하대학교·인하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30년, 독일 시민사회 경험을 넘어 한국 NPO역량 쌓기'라는 주제의 독일통일 연수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경험과 연수 이후 활동 현장에서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 시민단체의 연구는 정책적 제안이나 활동 영역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고, 활동가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사회의 시민사회 성숙과 통일운동의 진일보를 위하여 진보-보수 영역에 속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한 연수를 통하여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였고, 그 의미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수에 참여한 전체 활동가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네 가지 실존체(공간성, 시간성, 신체성, 관계성)에 입각하여 독일통일 연수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2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네 가지 실존체에 따라 독일과 한국의 차이와 거리감, 분단의 시간은 통일 준비하는 기회, 임파워먼트, 네트워킹의 필요성이라는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의미가 가지는 현상학적 함의와 정책적, 학문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통일연수 기획에 대한 정책적 자료와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독일통일, 연수경험,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 현상학적 연구

* 주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www.kci.go.kr

I. 서론

2020년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자 한국전쟁 70주년이면서 독일 통일 30주년으로 통일의 의미가 각별하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은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만, 한국사회의 통일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특히 독일통일을 견인하며 통일의 완성을 위해 여러 활동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독일의 시민사회단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손기웅, 2010; 박상봉 외, 2014). 독일통일은 동독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이룬 통일(손선홍, 2016: 258)이라고 평가되며, 통일 후에 동독 지역에도 수많은 네트워크와 시민단체가 생겨나면서 서독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김영윤·양현모, 2009: 246).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룬 1990년을 지나 한국에도 탈냉전의 변화가 찾아왔으며, 1987년에 민주화된 한국 정부는 안팎으로부터 통일과 평화의 요구를 받아들여 통일과 화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김학재, 2018).

분단된 한국의 정치상황 속에서도 통일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체계의 한 축으로써 시민사회가 그 위치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통일 관련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조정규, 2006). 백낙청(2006)과 이남주(2008) 등은 2006년경부터 '한반도식 통일과정론'에 연결된 '시민참여형 통일론'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이 분단체제의 진정한 극복이 되려면 일반시민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해왔다. 통일 문제는 시민사회의 관점으로 전환시킬 때 훨씬 더 현실적인 결합의 지점을 찾을 수 있다(조대엽, 2010). 이처럼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국제정세나 국내 정권교체에 휘둘리지 않는 불가역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공동번영의 남북관계가 가능할 것이다(서유석, 2019).

통일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은 정부와 국민, 시민단체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통일 정책의 공감대를 높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박상봉 외, 2014). 2020년 3/4분기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통일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는 190개(행안부 홈페이지), 통일부 허가법인은 2020년 11월 기준으로 442개(통일부 홈페이지)에 이른다. 이러한 통일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검토나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조정규, 2006; 안득기, 2007; 박상봉 외, 2014; 김성한·문경연, 2014)은 많지만, 정작 통일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경험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파악하고 국외 시민단체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김성한·문경연, 2014).

www.kci.go.kr

현실적으로 통일 관련 시민단체들 사이에도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쉽게 화합할 수 없는 갈등이 현존한다. 보수 통일단체는 북한의 인권이나 안보, 자유통일에 집중하고, 진보 통일단체는 남북 교류협력이나 평화통일에 집중하고 있다. 양측의 반목과 대립이 계속되면 정부, 시민단체, 국민 사이의 신뢰 구축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어렵다(박상봉 외, 2014). 이에 통일 관련 시민단체 내에서도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이해의 차이를 넘어 통일 준비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양안적(兩眼的)인 사고가 요청된다(이정희, 2002). 하지만 아직 이러한 노력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국내 통일 시민단체들의 역사가 짧고, 진보와 보수 성향의 통일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거의 없다. 또한 대북지원 같은 통일운동 현장은 첨예한 갈등으로 조직의 전문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가 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의존한다(박지혜 2014). 따라서 진보와 보수 성향의 통일단체 활동가들이 같은 경험을 한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9년 12월에 '통일 30년, 독일 시민사회 경험을 넘어 한국 NPO역량 쌓기'라는 주제의 연수가 국내 P연구소 주최, 독일 H재단 협력, 국내 T재단에서 후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연구자는 연수에 선발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공통적인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의 필요를 느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독일통일 연수에 참여한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경험과 의미를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독일통일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연수에 참여한 통일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의 경험과 의미의 본질을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은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의미를 가능한 한 연구자의 입장과 시선이 아닌 대상자(객체)의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van Manen, 1990)인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독일통일연수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가?'라는 현상학적 질문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연수 경험에 대한 의미를 규명하고, 나아가 한국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연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넓혀, 이들이 남북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통일과 시민단체 관련 연구

www.kci.go.kr

통일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북지원 시민단체의 북한 지원 내역에 대한 분석에 치중되어 있거나(김성한·문경연, 2014), 1980년대 말 국제적인 사회변동에 따라 변화된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의 새로운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에 대한 분석(조대엽, 2010)이 대부분이다. 안득기(2007)에 따르면 2000년대에는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교류·협력방안과 시민단체 자체의 점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2003년 이후 참여정부 시기에는 대북지원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박지혜(2014)도 대북지원 시민단체 관련 연구가 대북 지원의 시기별 현황분석이나 지원에 대한 논리와 영향력 그리고 국제 개발과 대북지원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보았다.

이정희(2002)는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주요 현안과 쟁점을 바라보는 통일 관련 시민단체의 이념적 차별성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기대, 그리고 통일방안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집단들 간의 유사성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 인식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통일 시민단체들의 화합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부족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한편 김성한·문경연(2014)은 대북지원 시민단체와 북한인권 시민단체가 협력하며 추진해야할 과제를 제시했다는 데에 미래지향적인 의의가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남북 관계의 완충망 역할(평화조성),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제고(민주주의 확산과 공고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참상 완화(경제개발 협력), 북한에 대한 민족 공동체 의식 회복(사회문화적 인식변화)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진보-보수 통일단체의 협력 방안에 시사점을 준다.

안보(보수)와 통일(진보) 단체가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밝힌 도희윤(2015)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안보와 통일을 각각 내세우는 운동들의 장점을 분석하면서 상호간 연결되는 공통의 영역을 제시하면서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수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두 영역의 단체들의 협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역할이나 경험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다.

통일관련 활동에 직접 참여한 활동가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박지혜(2014)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는 활동가 5인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업의 발전과 효과적 수행에 요구되는 접근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대북지원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운동과 교류협력 운동에까지 이르는 포괄적인 경험의 공통적인 의미를 밝히려는

www.kci.go.kr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독일통일과 시민단체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손기웅(2010b)은 2010년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아 독일 현지 워크숍을 통해 동·서독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진 협력과 평화적 이용방안을 분석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박상봉 외(2014)는 독일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분석하고 한-독 민관 협력 사례를 평가하면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였다. 독일 통일과정을 토대로 국내 시민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를 제안한바 있듯이, 본 연구에서 그러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독일통일 연수 경험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통일 연수에 대한 선행연구도 살펴보았다. 통일연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오기성(2006)은 초등학교 교원 대상 통일교육 직무연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김병연(2020)은 통일교육 교사 연수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고, 연수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일통일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가 제공하는 통일연구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서 통일 관련 연구의 현황을 볼 수 있는데, 독일통일 연구자료는 2,473개로 다른 연구주제들(정치행정 403, 외교안보 921, 경제 1194, 사회문화 655)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통일연구 DB 홈페이지 참조). 한편 독일통일 연수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공무원, 교사 등이 참여하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국토통일원, 1988), 연수에 참여한 이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관련 분야의 발전된 기술과 경험을 배울 수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접함으로써 문화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Chocce, et al. 2015). 해외연수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적용한 연구는 대학생과 교사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실제로 해외 단기 전공연수를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연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들(문원희·김영주, 2015; 정현숙, 2017; 윤은숙, 2018; 김상남, 2019)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해외연수 경험을 문화기술지적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박소진, 2007)나, 북유럽 교육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탐구한 연구(정민주, 2014)도 있다.

독일 통일 시민사회 해외연수에 대한 보고서 형식의 짧은 글들(석재왕, 2005; 우경식, 2005; 김성찬, 2007; 홍진석, 2009; 권오국, 2014; 오경섭, 2014; 선수현, 2015; 김가나, 2016; 이봉기, 2019)은 많이 있지만 성격이 다른 통일단체 활동가들의 연수 경험에 대한

www.kci.go.kr

체계적인 질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통일에 대한 준비 요청이 많아지고, 독일통일 연수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질적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독일통일 연수 프로그램

해외연수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해외 기관에서 교육받는 초국가적 경험의 일부로 "교육을 목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것"(Kinginger, 2009: 11)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해외연수는 P연구소가 주관하였으며,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민간차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 통일분야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및 중간간부들의 전문성 향상과 통일운동단체 간 연대를 통한 협업구조 구축으로 민간통일운동의 힘을 강화하고, 실무인력이 통일에 대한 시대적 사명과 업무에 대한 자신감으로, 통일운동에 지속적으로 매진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통일 NPO 영역의 유능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평화문제연구소, 2020)을 목표로 하였다.

연수의 참가자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 등록된 통일 NPO(비영리 시민단체)에 재직 중인 실무인력(활동가)으로서 1980년 이후 출생자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16명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국내교육 2회와 해외 연수가 진행되었는데, 각각의 일정과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독일통일 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구분	일정	장소	내용
1단계 국내 교육	2019. 11. 22.(금)	서울 종로	ㅇ 전문가 강의 - 제1강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교류와 NPO의 역할" - 제2강 "통일 이후 독일 NPO의 활동과 도전" ㅇ 연수기관 소개 ㅇ 조별 연수계획 토론 ㅇ 일정안내
2단계 해외 연수	2019. 11. 30.(토) ~ 12. 8.(일)	독일, 폴란드, 체코	ㅇ 독일통일 시민사회단체 NPO 및 공공기관 방문 - 베를린: 슈타지 본부 박물관, 공산주의폭력 희생자단체연합, 카리타스협회 등 - 라이프치히: 현대사포럼박물관, 니콜라이교회 - 드레스덴: 작센주 정치교육원 등 - 기타: 프랑크푸르트 오더 유로지역 중부협의회, 폴란드 수비체 등
3단계 국내 교육	2019. 12. 27.(금)	서울 광화문	- 조별 연수 결과보고서 발표로 성과 공유 -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노하우 및 아이디어 상호토론 -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견 제시 - 수료증 수여, 우수 참가자 선발 및 시상

www.kci.go.kr

연수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연수를 위해 1차 국내교육을 실시하여 연수의 주제 및 방문기관들에 대한 선행학습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전문가 강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방문기관, 답사지역에 대한 정보와 조별 과제, 보고서 작성 요령 등을 수록한 연수 자료집을 배부하였다. 2단계 국외연수는 독일, 폴란드, 체코에 위치한 현지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을 방문하였으며, 조별 연수계획을 토대로 사전에 준비된 내용의 질의응답과 조별토론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연수 후 국내에서 종합 워크숍으로 진행하였다. 연수에 대한 소감을 교환하고, 상호토론과 전문가의 총평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참가자(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향후 활동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이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경험을 기술하고 그 의미 구조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Polkinghorn, 1989), 연구참여자의 생활세계 자료로 본질구조를 파악하는 성찰과정을 거쳐 발견된 결과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다(신경림 외, 2008; 김영순 외, 2018). 본 연구는 통일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독일통일연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현상학 연구방법 중에서 의미를 밝혀내는 해석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활용하였다.

van Manen에 의하면 현상학은 체험을 지향하는 법을 기술하고, 해석학은 삶의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기술한다고 하였으며, 내적인 의미 구조를 발견하고 경험의 본성이나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술하려는 체계적인 시도이다(van Manen, 1990: 4-10). van Manen(1990: 101)은 연구 과정에서 현상학적 반성의 길잡이로써 네 개의 '실존체(existentials)'인 공간성(lived space), 신체성(lived body), 시간성(lived time), 관계성(lived human relation)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 개의 실존체를 중심으로 독일통일연수 경험의 의미에 관한 반성적 성찰을 시도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단계를 본 연구의 상황에 맞추어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www.kci.go.kr

〈표 2〉 연구 분석 단계

연구 단계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대입 내용
1단계 : 체험의 본질에 집중	(1) 현상에 대한 지향 (2) 현상학적 질문 형성 (3) 가정과 선 이해를 설명	(1) 관심있는 경험의 현상 명확히 하기 (2) 연구참여자의 독일통일 연수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가? (3) 성찰적 글쓰기: 독일통일 연수 경험에 유의미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서술함
2단계: 실존적 탐구	(4) 있는 그대로의 경험 탐구 (5) 현상학적 문헌 참고	(4) 독일통일 연수 경험에 대한 반성 연구 참여자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5) 관련 선행연구 참고
3단계: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반성	(6) 주제 분석 (7) 본질적 주제 결정	(6) van Manen의 네가지 실존체에 따른 주제 분리 (7) 본질적 주제 분석 및 결정: 말하고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주제적인 것 구분
4단계: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글쓰기	(8) 참여자의 언어에 집중 (9) 글쓰기 (10) 글 고쳐쓰기	(8) 연구 참여자의 살아있는 체험의 현상을 기술 (9) 연구참여자의 언어로 기술 (10)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찰하며 다시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서 부분과 전체를 고려한 균형을 잡으며 기술

연구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의 관심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연구현상에 대한 참여자의 경험이나 사건이므로(Miles & Huberman, 1994)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경험을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다(Sandelowski, 1995). 연수경험을 질적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김상남, 2019; 박소진, 2007; 유영희·김경희, 2004; 정영희 외, 2015)은 6명에서 12명을 선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수 참가자 16명 중에서 소속단체의 성향(활동 범주), 경력, 성별 등을 균등하게 분포하여 눈덩이표집(snow-balling) 방법으로 8명을 선정하였다. 특히 국내 갈등이 여전히 수반되는 주제라는 점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의 단체를 균등하게 고려하면서 연수를 기획한 단체 실무자에게 추천을 받았으며,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의 특징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참여자 특징

구분	성별	나이	경력	주요 업무 내용
연구참여자 A	여	38세	10년	통일문화 교육
연구참여자 B	남	29세	5년	탈북 청소년 교육
연구참여자 C	여	35세	9년	학교통일교육
연구참여자 D	남	34세	8년	대북지원 사업
연구참여자 E	여	36세	6년	북한인권 실태 연구
연구참여자 F	여	39세	7년	국내외 북한인권운동 협력
연구참여자 G	여	32세	5년	남북 문화예술 공연 기획
연구참여자 H	여	35세	6년	통일 후 사회통합 연구

www.kci.go.kr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방식을 병행하였다. 정확한 서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연구참여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능숙한 면담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철저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van Manen, 1990). 이에 면담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할 필요 없이 생각나는 대로 풍부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심층면담을 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상태, 즉 자료의 포화상태가 이르기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외연수의 마지막 이틀 동안 1차 면담을 진행하였고, 2차 면담은 연수 후 4개월 이내에 일대일 후속 면담(follow-up interview)을 1회씩 1~2시간 내외로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초기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고 면담이 진전될수록 대화의 흐름에 따라 반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하여 면담을 이어나갔다. “독일 통일연수를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십시오”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여 “독일 통일연수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느 기관에 방문했을 때 가장 큰 배움을 느꼈나요, 독일의 시민사회와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독일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통일 시민단체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진보-보수 시민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녹음한 면담자료는 일주일 이내에 전사하였으며, 전체 전사록은 A4용지로 65페이지이며, 문장 수는 1405문장이었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연구자 개인의 반성을 통하여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주의하였다(신경림 외, 2004: 243). 먼저 심층면담 후 전사한 원자료 읽기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독일통일 연수 경험이라는 현상 안에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집중하였다.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주제적인 것의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진술을 찾는 텍스트 분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분리된 텍스트를 현상이나 체험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한 문장은 유사한 개념이나 맥락 등으로 통합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으로 다시 생각, 다시 고찰, 다시 반성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 후에 의미 있는 진술들을 목록화하고, 그것들을 의미 단위 혹은 주제 범위로 묶었다. 이 과정에서 12개의 의미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van Manen의 네 가지 실존체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념이나 편견은 괄호 치기(bracketing)와 유예하기(epoché)를 지

www.kci.go.kr

속하였으며, 이러한 현상학적 환원(reduction)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면담자료가 해석되고 서술되는 과정에서 연구문제의 근본적인 성격이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van Manen, 2006: 715).

본 연구결과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분석 과정과 결과물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검토를 거쳤다. 또한 질적연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고, 심층면담에 많은 경험을 가진 박사과정 수료생들에게 분석자료와 결과에 대한 동료 검토법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과 독일통일 연수 경험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선입견을 최대한 제거하고자 거리두기 노력도 병행하였다. 심층면담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절차, 비밀보장, 면담내용 녹취, 면담거부권 등에 대한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연구참여자를 보호하였다. 면담 진행 방식과 이후 면담자료 보관 방법 등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랐다.

Ⅳ.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연수 경험의 의미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독일통일 연수 경험에 대한 van Manen의 현상학적 반성에 이르는 길잡이로서 생활세계의 네 가지 실존체(공간성, 시간성, 신체성, 관계성)는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주제를 잘 표출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독일통일 연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목록화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독일 통일연수 경험의 의미

실존체	본질적 주제	하위 주제
공간성	독일과 한국의 차이와 거리감	- 민간교류부터 시작한 역사가 부러움 - 시민사회의 높은 수준에 감탄함 - 정부와 시민사회 간 신뢰와 소통이 인상적임
시간성	분단의 시간은 통일 준비하는 기회	- 통일을 더 오래 준비하기 - 민주시민교육의 실천과 과제 - 통일한국의 역사적 과제 상기
신체성	임파워먼트	- 실무역량 강화 도전 - 재충전의 기회 - 활동가로서 책임감 고양
관계성	네트워킹의 필요성	- 활동가들과 관계 형성 - 참여 단체간 연대 노력 - 성향이 다른 단체와 교류

www.kci.go.kr

1. 공간성: 독일과 한국의 차이와 거리감

Heidegger(1962)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까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존적으로 공간은 '거리 제거' 즉 가까이함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현존재는 자신이 있는 공간, '여기'를 환경 세계의 '저기'로부터 이해하는데, 자신의 현 위치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공간성에 대한 관점에서 연구참여자 면담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민간교류부터 시작한 역사가 부러움', '시민사회의 높은 수준에 감탄함', '정부와 시민사회 간 신뢰와 소통이 인상적임'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해석학적 현상학 성찰에 의해 '독일과 한국의 차이와 거리감'이라는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1) 민간교류부터 시작한 역사가 부러움

연구참여자들은 독일 현장에서 매일 다른 기관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활동가와 실무자들의 강연을 들었다. 그 중에서 연구참여자 A는 독일의 가장 큰 교훈이 민간교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강사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 독일의 가장 큰 교훈은 '민간교류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연구참여자 A, 1차]

연구참여자 E는 통독 이전에 동서독이 서로 통일을 위하여 많은 교류와 협력을 했기 때문에 통일을 빨리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우선 남북 교류부터 활발히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 독일은 동서독간의 통일을 위하여 많은 교류와 협력을 했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이뤄낸 거 같아요. 우리도 우선 교류부터 활발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E, 1차]

연구참여자 C는 독일의 통일 과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북한과 문화, 경제, 역사 인식, 언어 등의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서로 보장된 환경에서 교류

www.kci.go.kr

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통일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독일 통일 보면서 우리는 남북문화교류, 경제교류, 역사적 인식교류, 언어교류 등 수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라이프찌히에서 박람회를 통해 많은 서독 사람들이 동독으로 드나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보장된 환경에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통일은 더 가까워 질 것이다. [연구참여자 C, 2차]

2) 시민사회의 높은 수준에 감탄함

연구참여자 C는 한국의 시민사회에 비교하여 독일의 시민사회 문화와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배웠다. 독일의 실용주의와 토론 문화에서 비롯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좋아보였다.

> 독일 시민사회는 우리와 많이 달랐어요. 독일문화 중에 가장 긍정적인 것이 뭐냐고 물었는데, 실용주의나 토론 문화라고 답했는데. (중략) 무엇보다 독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와는 진짜 다른거 같아요.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한국보다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라는 국가를 배울 수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H, 1차]

연구참여자 A는 한국과 독일의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우리는 비정부기구를 뜻하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시민사회라고 하지만, 독일은 좀 더 넓은 의미로 교회, 노조, 정당, 동아리 등을 시민사회로 여기고 있었다. 이런 차이가 인상적이었고,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탄하였다.

> 독일은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랑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시민사회라 하면 최근 2~30년 내에 생긴 NGO를 생각하지만, 독일은 전통적인 교회나 노조, 정당, 동아리 같은 것들을 시민사회로 여긴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그런 조직 구성원들의 시민의식이 아주 높아보였고요. 그런 거에 좀 감탄했어요. [연구참여자 A, 1차]

연구참여자 G도 비슷하게 교회, 노조, 정당, 동아리가 시민사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새로웠다. 그 역할의 마지막을 정치로 하는 것도 놀라웠고, 그 정치는 한국과 다르게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고 만나

www.kci.go.kr

는 공동의 장이라는 것을 느꼈다.

> 교회, 노조, 정당, 동아리가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주체들로 역할을 하는 것이 새로웠어요. 그 활동 결과의 마지막 방점을 정치로 한다는 이야기도 놀라웠고요. 독일 사회에서의 정치가 어떠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가 만나고 충돌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공동의 장이라는 걸 느꼈어요. [연구참여자 G, 2차]

연구참여자 D는 독일 시민사회의 높은 수준이 인상 깊었다. 독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원에서 초당적인 입장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는 일은 한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부럽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통일로 나아가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독일 연수 기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독일의 시민사회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이었어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느 한 정당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초당적인 입장에서 제공하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독일에서는 이런 정치교육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부러웠어요. (중략) 독일 통일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컸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사회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D, 2차]

3) 정부와 시민사회 간 신뢰와 소통이 인상적임

연구참여자 E는 독일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각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시민사회 문화를 이루어 낸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도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도 잘 하고 있는거 같았어요. 정부, 시민단체, 연구소 각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뤄낸 독일의 시민사회를 보며 한반도 전역에서 활발한 시민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연구참여자 E, 1차]

www.kci.go.kr

연구참여자 G는 독일의 시민사회 재정의 대부분이 정부 지원금이라는 사실이 신기하였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신뢰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전혀 달라서 신기하게 느껴졌다. 독일 시민사회는 정부와 오랫동안 소통해오고 정부도 시민사회를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 시민사회 운영 재정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금이라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만큼 정부가 시민사회를 믿고 있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정부가 시민사회를 못 믿잖아요. 정부 사업 따내기도 어렵고, 결과 보고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독일은 시민사회가 정부와 소통도 오랫동안 해오고, 정부도 시민사회를 믿으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연구참여자 G, 2차]

2. 시간성: 분단의 시간은 통일 준비하는 기회

van Manen(1990)은 경험된 시간이란 세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시간적인 길'이며, 시계를 지칭하거나 또는 객관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시간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성과 관련한 주제로 '통일을 더 오래 준비하기', '민주시민교육의 실천과 과제', '통일한국의 역사적 과제 상기'라는 주제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분단의 시간은 통일을 준비하는 기회'라는 본질적 주제로 도출되었다.

1) 통일을 더 오래 준비하기

연구참여자 F는 방문 기관 중 한 강사가 독일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오랜기간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다는 회고가 기억에 남았다. 이처럼 한국도 조바심을 내지 말고 조금씩 진보해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어떤 강사분이 전쟁 후 1949년에 독일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다고 회고한 것처럼 우리도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금씩 한걸음씩 걸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F, 1차]

연구참여자 A는 1990년에 통일을 이룬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을 비교하면서 독일통일로부터 여러 시사점을 얻었다. 독일에 비하여 분단의 기간이 오래되는데, 이를 부정적으로만

www.kci.go.kr

보지 않고 오히려 통일준비를 더 오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독일은 1990년에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언제될까 싶어요. 한반도 분단은 동서독 분단과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독일의 평화 통일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죠. 또 우리가 참고해야 할 내용이 많았어요.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적인 거는 분단이 오래될수록 통일을 더 오래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연구참여자 A, 2차]

연구참여자 E도 독일 통일을 배우면서 우리의 통일과정도 시간이 지나는만큼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분단의 시간이 통일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독일보다 한참 통일이 늦었지만 그만큼 더 길게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여겼다.

> 독일 보면서 우리 통일과정이 거칠고 지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는만큼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거를 봤어요. 우리나라의 통일이 늦어질수록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도 많아지는 것이라고 믿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독일보다 통일 준비를 더 많이 더 길게 하고 있으니, 우리의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만들 수 있어야겠죠. [연구참여자 E, 2차]

연구참여자 G는 우리의 통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처럼 꾸준하게 통일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이 길어지고 있는데. 통일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통일 시기를 예상하기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통일 문제 관심을 갖고 지금처럼 준비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G, 1차]

2) 민주시민교육의 실천과 과제

연구참여자 D는 드레스덴 작센주에 위치한 정치교육원 부원장의 강의가 기억에 남았다. 그곳에서 진행하는 정치교육의 최종 목표는 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는 것인데,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연구참여자 D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교육원이 마을마다 생겨서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www.kci.go.kr

> 드레스덴 작센주 정치교육원에서 부원장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정치교육의 최고 목표는 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는 거라고 하면서, 교육 참석자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지 않음을 강조했죠. 우리나라도 이런 건전한 정치교육원이 마을 곳곳마다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고,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D, 1차]

연구참여자 B는 독일 국민의 1%만 정치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점이 의외였지만, 일회성 교육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우리도 따라야한다고 생각하였다.

> 의외였던 부분은 독일 국민의 1%, 그러니까 약 80만 명 정도만 정치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인데, 생각보다 적은 수치여서. 그럼에도 많이 공감 갔던 부분은 일회성 교육이 아닌, 장기적, 지속적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연구참여자 B, 1차]

연구참여자 C는 정부차원의 민주시민교육 담당기관이 있는 독일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민주시민교육 기본법이 국회 계류 상태에 있어서 제도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또한 서독 뿐만 아니라 동독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된 것을 보면서,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도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독일은 정부차원의 민주시민교육 담당기관 및 기구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민주시민교육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상태에 있고, 시민사회 혹은 각 지자체나 교육기관의 조례나 권고사항으로만 존재하잖아요. 우리도 빨리 제도화해야하지 않겠나 싶었죠. 독일 민주시민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이 민주주의 진작을 위해 서독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서독 연방정부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동독은 종전이후 소련이 관리하다 통일 후 1991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된 걸 보면서, 북한주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언젠가 하게 되겠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야겠다 싶었어요. [연구참여자 C, 1차]

3) 통일한국의 역사적 과제 상기

연구참여자 C는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통일을 이루었고 선진국이라는 이유로 따라

www.kci.go.kr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독일통일은 위에서 아래로(top-down)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충분한 준비 없이 감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 및 심리통합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통일을 이루기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이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그래도 독일은 통일을 이루긴 했고,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이유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독일인 강사가 이야기했듯이 독일 통일 사례는 바람직한 사례는 아니었다고도 하잖아요. 통독 방식은 top-down이었고, 갑자기 이루어진 통일로 많은 무리수가 발생하기도 했고. 제도통합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지만, 사회통합이나 심리통합은 아직 완성 안 되었다고 평가되잖아요. 갈등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역사적인 과제라는 거.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이겠죠. [연구참여자 C, 1차]

연구참여자 G는 독일과 한국사회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교육시장 과열과 시민사회의 경쟁 그리고 보여주기식 민주시민교육이 문제라고 느꼈다. 그러면서 해외사례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스스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였다.

> 독일과 비교할 때 한국사회의 과열된 교육시장과 시민사회의 경쟁도 문제라고 느껴졌어요. 생존하기 위해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은 보여주기 식의 특별함에만 매몰 됐던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하게 되고. 또 해외사례에 기대지 않고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한국현실을 반영한 과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연구참여자 G, 1차]

3. 신체성: 임파워먼트

신체성은 스스로 느끼고 지각하는 몸으로 세상과 교류하는 주체로서의 몸을 의미한다(van Manen, 1990). 연구참여자 심층면담 자료와 해석학적 현상학 자료를 통해 도출된 신체성의 주제는 '실무역량 강화 도전', '재충전의 기회', '활동가로서 책임감 고양'이었다. 이를 해석학적 현상학 성찰에 의해 역량 강화를 뜻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라는 본질적 주제로 기술하였다.

www.kci.go.kr

1) 실무역량 강화 도전

연구참여자 C는 한국현실을 반영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내공을 쌓는 일에 집중하고, 자신의 단체 목적사업을 잘 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야겠다는 도전을 받았다.

> 한국현실을 반영한 내용과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한 내공을 쌓는 일에 더 집중해야겠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목적 사업 잘 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야겠다 도전을 받았어요. [연구참여자 C, 2차]

연구참여자 D는 이번 연수가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인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였다. 독일 통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배운 것이 많고 통일 이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며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가서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 이번 연수는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요. 특히 NPO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 실무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으며 배운 것도 많았고, 통일 이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죠. 한국에서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D, 2차]

연구참여자 E는 독일통일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성과를 보며 부럽기도 하면서도, 자신의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 독일 통일 과정이 미흡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자평하는 독일의 기관들을 보면서, 통일 독일의 활발한 시민 사회와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며 부럽기도 하고. 앞으로 내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었고. [연구참여자 E, 2차]

2) 재충전의 기회

연구참여자 B는 독일 통일 현장에서 뜨거운 마음을 다시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덕분에 자신의 현장에서 힘을 내서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한 상황보다 더 열악하기도 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희망을 얻기도 하였다.

www.kci.go.kr

이번 연수 통해 다시 한번 현장에서 힘을 내어 내가 맡은 일을 잘 해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독일 통일을 현장에서 보고 마음의 뜨거움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남북 상황보다 열악했던 부분도 있었던 독일통일을 보고 희망을 가지기도 했고. [연구참여자 B, 1차]

연구참여자 G는 한국에서 일에 치여 자신의 삶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일주일간의 연수를 통해 힘을 많이 얻는 등 충전되는 경험이었다.

주최 측에서 하나하나 정말 세심히 챙겨주려 노력하신 것이 보였고, 항상 일에 치여 내 삶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일주일동안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느꼈고, 내가 하는 일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어 힘도 많이 얻었고요. 이번 연수를 통해 정말 200% 이상 충전받았어요. [연구참여자 G, 1차]

연구참여자 C는 통일단체 활동가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많은 상황에서 자신을 위한 충전과 교육의 시간이 없었지만, 이번 연수가 충전과 교육받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대부분의 통일 분야 NPO 실무자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많은 상황에서 나 자신을 위한 충전과 교육의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욱 이번 연수가 소중했어요. [연구참여자 C, 2차]

3) 활동가로서 책임감 고양

연구참여자 A는 독일통일을 배우면서 우리의 통일을 활동가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해야하는 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여러 분양에서 통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활동가인 연수 참가자들부터 독일 통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하는 등의 활동가들이 해야할 책임감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알아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내용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교류하고, 북한 주민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활동가인 우리부터 독일 통일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통일 문제에 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www.kci.go.kr

갖게 하고, 통일 준비에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서로 다함께 책임감있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A, 1차]

연구참여자 F는 독일 공산학정 피해자 협회(UOKG) 직원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 독일 통일이 되었을 때 해피엔딩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국에 대입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하는 일을 하는데, 그들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UOKG에서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통일 됐을 때 '자 이제 통일됐으니 이제 해피엔딩이다.' 라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중략) 어떤 희생자는 인생이 망가지고 상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꽂혔어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왔다고 이제 해피엔딩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기 보다 이해 할 수 없는 투성이에 적응 해야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왜 한국이 탈북민을 이해하는 만큼 따라와 주지 못 하고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냐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 좁은 마음을 깨달으며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연구참여자 F, 1차]

연구참여자 H는 독일에서 통일에 관련한 내용으로 고민하고 업무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배움을 얻었다. 개인적인 여행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기회였고 한국 사무실에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고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단체에 대해 출발점과 지향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였다.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해당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선별하여 일정을 짜주셔서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었죠. 개인 여행으로는 가질 수 없는 기회였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때와 달리 새로운 고민을 할 수 있었어요. (중략) 저희 단체의 출발점과 지향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H, 2차]

연구참여자 F는 통일 이후 30년이 지나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독일의 시민단체들을 보면서 한국의 통일단체 활동가들도 통일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통일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카리타스 협회, 라이프치히 시민재단과 같은 독일 NPO

www.kci.go.kr

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NPO 실무자들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겠다 싶었어요. [연구참여자 F, 1차]

4. 관계성: 네트워킹의 필요성

관계성은 우리가 공유하는 대인 관계의 공간에서 타인과 유지하는 경험된 관계이다. 관계란 자신 혹은 타자들과 유지하는 경험적 관계를 뜻하는데 우리는 타자에 대한 경험에서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채워간다. 따라서 자신이나 타자와의 경험적 관계는 경험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이 된다(van Manen, 1990: 104).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독일통일 연수에서 겪은 내·외적 상호작용은 자신과 타자와의 경험적 관계를 상징하는 실존체의 관계성 영역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관계성의 관점에서 도출된 주제는 '활동가들과 관계 형성', '참여단체간 연대 노력', '성향이 다른 단체와 교류'였다. 이를 해석학적 현상학 성찰에 의해 '네트워킹의 필요성'이라는 본질적 주제로 기술하였다.

1) 활동가들과 관계 형성

연구참여자 E는 독일의 시민단체 강사들뿐만 아니라 함께 연수에 참가한 활동가들에게도 많이 배웠다. 다른 단체의 활동가들을 만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는 거의 없는데, 이번 연수를 통하여 활동가들만 모여서 관계를 형성한 경험은 특이하고 좋았다.

강사들에게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젊은 활동가들에게도 많이 배웠어요. 통일과 연관된 일을 하면서도 다른 단체에 있는 활동가들과 소통하는 자리는 거의 없는데. 또 무슨 세미나나 간담회를 가도 젊은 활동가의 목소리는 거의 없죠. 근데 이번에는 젊은 활동가들만 모여서 관계 만들 수 있는 점이 특이하고 좋았죠. [연구참여자 E, 2차]

연구참여자 H는 통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로 일하는 활동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NPO 들을 만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각자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고요. [연구참여자 H, 2차]

www.kci.go.kr

연구참여자 D는 다른 단체의 활동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는 단체와 같은 조가 되어서 더 의미있다고 생각하였다.

> 무엇보다 다른 기관의 NPO 실무자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는 단체끼리 조원으로 구성해 준 기획 덕분에 더 의미 있었네요. [연구참여자 D, 1차]

2) 참여 단체간 연대 노력

연구참여자 E는 이번 연수경험의 가장 큰 성과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꼽았다. 북한 인권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참여자 E는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대북 지원 등 다양한 단체들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어서 다각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 또한 독일에서 자신의 업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좋았다고 여긴다.

> 이번 연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이에요. 한국에는 비교적 시민단체의 수가 적고, 그중에서도 북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단체는 매우 적어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아이디어나 활동 다양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연수에서 통일 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대북 지원 등 다양한 단체들과 만났잖아요. 연수 중 세미나에서 자기 단체의 성격에 따라 목적과 주목하는 부분이 다른 질문을 보면서 다각적인 사고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또 유사한 일을 하는 독일 단체들과 세미나 후, 필요시 지속적인 협력을 할 기회도 주어진 것도 좋았고요. 이번 연수 프로그램 아니면 얻기 힘든 소중한 네트워크죠. [연구참여자 E, 1차]

연구참여자 H는 통일관련 단체들의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서로 협업을 제안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참여단체 간 연대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통일 관련 단체들이 상생하고 공존하며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미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단체와 함께 협업할 것을 제안도 하고. (중략) 더 많은 기업들과 도너들이 통일 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나고 설득하며,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작은 단체 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식으

www.kci.go.kr

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H, 2차]

연구참여자 G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을 고민하기도 하고,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덕분에 실무적 목표를 세우고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 NPO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었고.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는 NPO 실무자들과 이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죠. 이러한 과정은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연수를 통해 실무적 목표를 세우고 여러 단체들과 네트워킹하여 어려운 길을 함께 나아가는 기회가 된 듯해요, [연구참여자 G, 2차]

연구참여자 C는 참가한 단체들의 연대를 활성화해서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중복되는 투자는 줄이는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단체들과 경쟁관계가 아닌,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의식이 통일단체들에서 먼저 생기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작은 통일 단체들이지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통일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성을 기르고 중복되는 투자는 줄이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의식이 우리 통일단체들에게 먼저 생기면 좋겠고요. [연구참여자 C, 2차]

3) 성향이 다른 단체와 교류

연구참여자 A는 서로 다른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들과 함께 연수에 참여하면서 모두가 통일을 위해 일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성향이나 지향점이 다른 단체와 당장 직접 협업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연수에서 알게된 단체를 소개해주거나 개인적인 지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비록 서로 일하는 단체의 성향이나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16명의 참가자가 모두 통일을 위해 일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www.kci.go.kr

된 건데. 하는 일이 다르고 성향이 많이 다른 단체와 저희 단체가 직접 협업하는 것은 당장에는 힘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이러한 단체들이 하는 일에 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러한 단체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개인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2차]

연구참여자 F는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평소에 탈북민 지원 단체에 관심은 있지만 만날 일이 없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탈북민 지원 활동가를 알게 되어서 그들의 시각에서 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던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경험이 유익했다.

개인적으로 평소에 탈북민 지원을 NPO들이 어떻게 하는지, 탈북민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학교 수업 외에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런 일을 하는 단체들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듣거나 그 기관 대표님이 하는 강연을 통해서만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번 연수에서 직접 이런 단체에서 일하시는 실무자와 교사를 만나게 되어 그 분들 시각에서 단체가 어떤 곳인지 듣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게 유익했죠. [연구참여자 F, 1차]

연구참여자 E는 함께 참여한 다른 통일 시민단체들과 깊이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가들을 한번에 밀도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함께 참여하는 다른 통일 NPO들과 깊이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어디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연구참여자 E, 1차]

연구참여자 D는 대북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통일교육이나 북한인권 등 다른 성향의 단체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다.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활동가들과 여러 이슈에 대해 대화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대북지원 단체에서 일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 실무자들을 만나고 얘기할 기회가 적었죠. 다양한 통일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와 평소에 통일교육, 북한 인권, 여러 이슈에 대해 갖고 있던 개인적인 의문들을 나누고 생각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어요. [연구참여자 D, 1차]

www.kci.go.kr

V. 결론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해외연수 경험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다. 본 연구는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독일통일 연수 경험을 그들의 입장에서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으로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연수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독일통일 연수에 제공하는 함의를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와 통일 연수에 대한 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경험한 독일통일 연수는 그들 자신과 연수 이후 활동 현장에서 어떤 의미인가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독일연수 과정을 경험한 8명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12가지의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 네 가지 실존체에 따른 본질적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질적 주제들은 공간성에서 '독일과 한국의 차이와 거리감', 시간성에서 '분단의 시간은 통일 준비하는 기회', 신체성에서 '임파워먼트', 관계성에서 '네트워킹의 필요성'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상학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독일통일 연수는 다양한 배움을 얻는 경험이었다. 국내 연수 또는 문헌 연구로는 경험할 수 없는 독일통일 사례에 대한 현장학습이 지적, 실무적 갈증과 요구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공간성 측면에서 독일과 한국의 차이와 거리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만큼 독일 사례에서 배울 것과 한국 현장에서 적용할 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 독일통일은 민간교류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역사와 전통에 의해 형성된 시민사회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을 보았는데, 한국과 비교되면서 부럽기도 하고 감탄하였다. 이는 시간성 주제에서 분단의 시간을 통일 준비의 기회로 여기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독일은 준비 없이 갑자기 통일한 반면, 우리는 분단의 시간이 긴만큼 통일 준비를 더 오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독일통일의 밑바탕이 되는 민주시민교육을 한국에서 실천할 필요성과 새로운 과제를 인식하였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역사적 과제를 되새기는 경험이었다. 이는 다른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사대주의적이거나 자문화중심주의적인 수용이 아닌,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배우며 공존해야 한다는 김영순(2017)의 연구와 유사하다.

둘째, 독일통일 연수는 연구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독일통일 연수에 참가한 연구참여자들은 각자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증대해나가

www.kci.go.kr

는 것과 동시에, 활동가로서의 책임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즉, 독일통일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가와 대표들을 통해 그들의 노력과 업적 그리고 헌신에 감동을 받으며 연구참여자 자신들의 실무역량 강화에 대한 도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독일통일 연수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덕분에 활동가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해외단기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사고력, 리더십 역량과 문화 역량 증진, 개인적 성장,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되었다는 황선영 외(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독일통일 연수에 함께 참가한 다른 단체들과의 네트워킹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여러 관계의 연결체계"(Barnes, 1979: 406)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다수의 시민단체들 간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갈등과 마찰을 해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안득기, 2007)과 동일하며, 진보와 보수의 시민단체들 간에 연대(連帶)가 필요하다(박호성, 2002: 16)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본 연수의 참가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징은, 주최 측에서 계획적으로 진보와 보수 성향의 단체를 두루 포괄하려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성향의 단체 활동가들을 한 번에 여러 명을 만난 경험 자체가 특별했고 유익했다고 하였다. 참여단체들끼리 연대하려는 노력도 나타났고 활동가들이 관계를 형성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싶다는 마음이 발생하였다. 이는 통일 관련 시민단체들 사이에도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쉽게 화합할 수 없는 갈등이 현존하는 현실에서 젊은 활동가들의 공통적인 경험과 연대의 필요를 느낀 계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진보와 보수 성향의 통일단체들이 상생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도희윤(2015)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다. 진보와 보수로 구분되는 통일 시민단체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경험과 도전은 국내 통일운동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통일 연수 경험을 통해 활동가들은 상당한 내외적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경험이 소멸되지 않고 의미 있게 통일 시민단체 현장에 공유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독일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관계처럼 적극적인 지원과 신뢰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는 국내 통일 시민단체들의 열악한 상황을 이해하고, 통일 시민단체는 정부나 지자체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 신뢰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나아가 활동가들이 경험한 연수의 의미를 각 단체에서 충분히 수렴하여 반

www.kci.go.kr

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통일 관련 연수의 기능이 활동가들의 재충전과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험이어야 함을 드러내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여러 업무 과중으로 지치고 다각적인 배움을 얻기 어려운 환경에서 참가하는 연수이므로 이를 통해 얻어진 활동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70여년간 지속된 한반도 분단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다양한 정치적 상상들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김학재, 2018).

셋째,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가 필요하다. 연수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통일 협업 연구회나 자발적인 친교모임을 통하여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연수를 마친 활동가 개인의 의미로만 끝나버리지 않으려면, 경험한 배움과 도전들이 통일 시민단체 현장에 어떻게 확산되도록 할 것인지 혁신의 확산(Rogers, 1995) 측면에서 관련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독일통일 해외연수에 대한 질적 연구가 드물다는 점에서 통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경험한 특수성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가진다. 또한 지금까지 통일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는 한쪽 영역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는데, 본 연구는 진보와 보수 통일단체 활동가들의 공통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여 서로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제언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경험과 의미가 자신의 행동을 표현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듯이, 활동가들이 경험한 독일통일 연수는 통일 시민운동 전반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시민단체의 젊은 활동가들의 경험을 조명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2022년까지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통일부 2017: 16). 통일국민협약 추진의 하위 내용으로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과 통일교육 등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젊은 활동가들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평가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참여의 확대 등 21세기적 가치와 결합하려는 탐색작업(김동춘, 1997: 212)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우선 향후 독일통일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정책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시민단체 활동가의 역할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유용한 지침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진웅. (2013). “이산 속의 북한여성: 하위주체로서의 여성의 삶과 정체성의 정치”. 「아세아연구」, 152: 260-292.

김윤나·주경필. (2017). “출신성분에 따른 북한여성의 문화적응 기제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8(2): 329-338.

박현선. (2003). 「현대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국토통일원. (1988). 『출장결과보고: 제5차 분단국문제 한독정부간협의회 및 제2차 서독파견연수』. 국토통일원.

권무혁. (2011). “평화통일과 민주시민의 역할”. 『시민인문학』. 20호, 105-143.

권오국. (2014).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체코,독일) ; 통일은 "재앙"이 아니라 "대박"으로 인식해야”. 『통일한국』. 361호, 40-41.

김가나. (2016). “독일통일 현장연수: 소통에 기반한 자정능력, 통일독일의 힘!”. 『통일한국』. 395호, 26-29.

김동춘. (1997). 『분단과 한국사회』. 서울: 역사비평사.

김병연. (2020). “서울지역 교사의 통일교육 연수에 관한 인식 연구”. 『인문사회 21』. 11권 1호, 597-608.

김상남. (2019). “간호 학생의 해외 전공연수 경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권 4호, 1131-1152.

김성한·문경연. (2014).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국제관계연구』. 19권 1호, 143-174.

김성찬. (2007). “통일독일 현장연수: 과거청산을 통해 민주사회의 소중함 알게 한다”. 『통일한국』. 278호, 58-60.

김영순. (2017). 『다문화사회와 공존의 인문학』. 경기: 디비북스.

김영순·김진희·강진숙 외. (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창지사.

김영윤·양현모 편. (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서울: 통일부.

김영주. (2010).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통일담론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용기. (2017). “한국과 독일의 통일교육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교육에의 시사점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권 4호, 147-156.

김학재. (2018). 『판문점 정전체제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체제로』.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

www.kci.go.kr

회·한국민주주의연구소.
도희윤. (2015). “안보시민단체와 통일시민단체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 - 통일시대를 여는 새로운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21호, 1-8.
문원희·김영주. (2015). “간호대학생의 전공 융합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권 2호, 1-11.
박상봉·양경석·우광호. (2014). 『통일준비과정에서 시민단체 역할 연구- 통일준비위원회 용역 연구과제』. 서울: 사단법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박소진. (2010). “한국 사회 문화 재인식과 세계 속 자기 정체성 찾기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동기와 경험”. 『비교한국학』. 18권 1호, 217-262.
박지혜. (2014). “NGO 활동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경험의 본질과 의미”. 『사회과학연구논총』. 30권 1호, 127-149.
박호성. (2002). “시민참여와 국민복지 확대로 민족통일을”. 『기억과 전망』. 1호, 12-16.
백낙청. (2006).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서울: 창비.
서유석. (2019). “남북교류와 시민사회”. 『통일인문학』. 78권, 235-253.
석재왕. (2005). “통일독일 현장연수: 독일의 구동독지역 환경오염 개선정책 환경정책이 사회, 문화적 통합에도 기여”. 『통일한국』. 261호, 63-65.
선수현. (2015). “통일독일 현장연수: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동서독을 오갔다”. 『통일한국』 373호, 40-43.
손기웅. (2010a). 『독일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서울: 통일부.
_____. (2010b).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Ⅳ)』. 서울: 통일연구원.
손선홍. (2016). 『독일통일 한국통일』. 서울: 푸른길.
안득기. (2007). “남북한 교류협력과정에서 NGO의 역할평가”. 『21세기정치학회보』. 17권 2호, 87-119.
오경섭. (2014).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체코,독일) ;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단체 간 거버넌스 모델 체험”. 『통일한국』. 361호, 36-37.
오기성. (2006). “초등 교원 통일교육 직무연수의 분석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3권 2호, 189-208.
오기평. (2001). “평화통일과 시민단체의 역할”. 『동아시아연구논총』. 12호, 259-263.

www.kci.go.kr

우경식. (2005). “통일독일 현장연수 ; 통일독일과 체코간 지역협력 협력프로젝트 통해 통일후유증 극복에 일조”. 『통일한국』. 261호, 57-59.

유영희·김경희. (2004). “초등 과학실험연수 참여교사의 연수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13권 3호, 111-128.

이남주. (2008).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의 역할과 가능성”. 2008 세교연구소 심포지엄.

이봉기. (2019). “통일독일 현장연수: 분단이 할퀸 상흔의 자리에 상생과 협력이 피어나고 있었다”. 『통일한국』. 421호, 58-61.

이인정. (2013). “남북통일과 시민성- 세대갈등 통합과 교육적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41권, 157-187.

이정희. (2002). “통일관련 사회단체의 이념적 차별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42권 4호, 117-149.

정민주. (2014). “교사들의 해외 연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네 교사의 북유럽교육탐방 이야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정현숙. (2017). “한국간호대학생의 미국간호대학 단기 연수경험”. 『질적연구』. 18권 2호, 145-159.

조대엽. (2008). “한반도 평화 통일운동과 시민적 정체성”.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공동주최 학술 토론회 자료집: 남북관계에서의 시민사회 역할과 진로모색』. 57-73.

조대엽. (2010). “한반도 평화통일운동과 시민적 정체성”. 『사회과학연구』. 49권 1호, 159-184

조정규. (2006). “통일과 시민단체의 역할”. 『동북아연구』. 11권, 61-74.

통일부. (2017). 『시민참여형 ‘통일국민협약’ 실행방안 연구』. 서울: 통일부.

평화문제연구소. (2020). 『통일 30년, 독일 시민사회 경험을 넘어 한국 NPO 역량 쌓기』.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홍진석. (2009). “통일 독일 현장연수를 다녀와서 ; 독일 통일은 40년간의 분단 극복 노력 산물”. 『통일한국』 301호. 70-73.

황선영·김진선·안현미·강선주. (2015). “간호학생을 위한 국제보건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26(3), 209-220.

Chocce, J., Johnson, D. A., & Yossatorn, Y. 2015. Predictive factors of freshmen's intercultural sensi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Technology, 5(10), 778-782.

www.kci.go.kr

Barnes, John A. 1979. Network Analtsis, in Paul W. Holland & Samuel Leinhardt(ed.), Perspectives on Social Network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Kinginger, C. (2009). Language learning and study abroad: A critical reading of research.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olkinghorn, D. E. (1989). Phenomenological research approach. In R. S. Valle, & S. Hall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in psychology 233-244. NewYork: Plenum.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the lived experience. Washington, DC: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통일부 법인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open/corporation/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https://npas.mois.go.kr

통일부 통일연구DB 독일통일 아카이브

https://udbs.unikorea.go.kr/user/board/List.do?categoryType=107&cateCode=190

www.kci.go.kr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Unification NPO Activists' Experience in German Unification Training

Taehoon Kim & Youngsoo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s of activists of unification civic groups who participated in the German unification training under the theme of '30 years of unification, building Korean NPO capabilities beyond German civil society experiences'. Until now, the research of unified civic groups has been focused on research on policy proposals and activities, and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activists is hard to find. For the maturity of the civil society in Korean society and the advancement of the unification movement, a study is needed to analyze what kind of experiences they had and what the essence of the meaning was through training in which civil society activists in the progressive-conservative domain participat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8 people, half of all activists wh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Based on van Manen's hermeneutical phenomenology research method, the meaning of the German unification training experience was analyzed based on four entities (spatiality, temporality, physicality, and relationa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2 sub-themes were derived. According to the four entities, the difference and the sense of distance between Germany and Korea, and the time of division are the opportunity for unification preparation, empowerment, and the necessity of networking. The essential theme was derived. The phenomenological implications of these experiences, as well as policy and academic suggestions were presented.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future cooperation and network of unified civil society activists as well as policy data for future unification training plans.

* Key Words: German unification, training experience, unified civic groups, activists, phenomenological research

투고일: 2020.11.10 / 심사일: 2020.11.24 / 게재확정일: 2020.12.24

www.kci.go.kr